

대한물리치료학회지 제4권 제1호 1992
KAPT Vol. 4, No. 1, pp 69~78, 1992.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요육실기교사의 스트레스 비교 연구

전북재활학교
정태훈

A Comparative Study of Stress Level of Therapeutic Education Teachers According to Their Responsibilities in Special School Setting

Chonbuk Rehabilitation School
Chung, Tae-Hoon, M.P.H., R.P.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grasp the special school therapeutic education teachers, stress degrees in the real educational fields, and to compare the different stress degrees by the teaching responsibilities, by sex, by age, by the careers of special teaching profession, by his or her assiduity by the academic careers and teacher qualification, and by the reasons of stress.

To perform this survey, the writer analyzed the answer sheets of the questionnaires returned by 85 special school therapeutic education teachers all over the countr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

First, the mean value of stress by the whole teachers was shown as endurable, and there was no difference among stress levels by the teaching responsibilities. As for the ratio of teachers confronted with the dangerous level of stress, the teachers taking charge of feeble-minded school teachers the highest ratio, and those charging of deaf & dumb school teachers, the lowest.

Second, the comparison by age didn't result in any difference, but in the relation of age to the handicap division there appeared meaningful differences. That is in the case of the therapeutic education teachers charging of crippled school, it revealed that the older they were, the more stress they suffered. In the case of the teachers charging of visually deaf & dumb school the tendency was opposite. The comparison by the special teaching profession careers, there showed no difference in the stress degree. The high or low academic careers didn't make any influence on the therapeutic education teachers stress degree.

Third, The revealed on the highest stress degrees, because reasons of relation the student's parents with students behavio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건강이란 개인의 신체적 여건과 사회적환경 및

생물학적 기질과의 상호작용 결과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안정이 역동적으로 상호관련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사가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때 교직에 대하여 만족하고 교장과 동료교사와의 인화 및 협력, 학부모나 지역사회주민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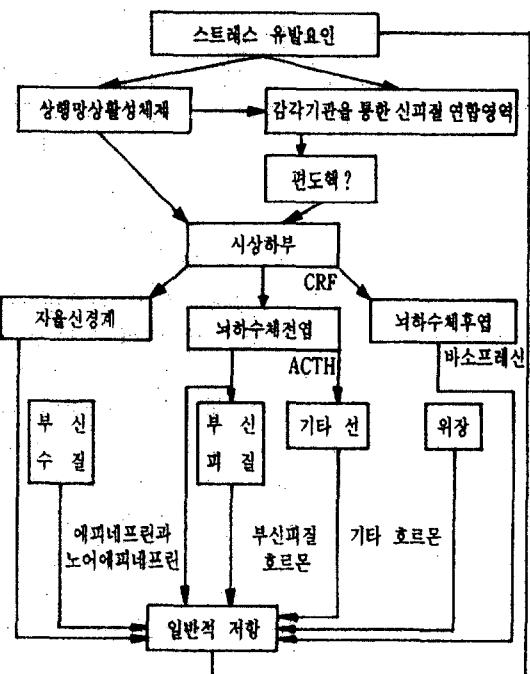
아가 학생과의 인간관계가 건전하게 지속되어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의 정신건강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교직관, 전문지식, 교육철학과 방법 및 교사의 가치관 등과 함께 교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라 생각한다. 교사의 건전한 정신이란 교사가 자기의 직책을 얼마나 만족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의미와 관련된다. 즉 환경에 대한 적응력, 생활에서의 만족감, 건전한 인간관계의 유지, 평화롭고 진실된 성격 등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달한 산업화, 도시화된 사회에서 개인이 정신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즉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인이 적절하게 적응을 하지 못할 때 불안 및 갈등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어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습성, 태도, 가치체계가 그가 소속한 집단의 그것과 항상 일치하지만은 않는 데서 나타나고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어 적응이상을 초래 한다. 이런 영향은 일반인에게나 교사에게나 다를 바가 없지만 외부에서 교사에게 요구하는 기대와 교사 자신이 지각하는 기대와의 불일치는 교사의 심리적 불안을 면할 수 없게 한다. 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내적갈등은 우리들에게 여러가지 유형의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며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Hans Selye(1956)의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정신신체 질환같은 생리적 손상 외에도 많은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의 뒤를 이어 Holmes와 Rahe(1967)는 많은 질병과 그 증상을 유발시키는 생활변화와의 관계를 명백히 하여 이를 수량화하기 위한 '사회적 적용평가척도'를 만들어 질병발생과 생활변화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들이 바탕이 되어 교사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Ben-sky(1980), Shaw(1981), Weiskopf(1980) 등에 의하여 특수교육교사들의 특수아양과 관련된 직업의 성질상 일반교사와는 다른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이 밝혀졌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고병학(1981) 등의 '한국인의 생활사건에 관한 예비적 연구'를 비롯하여 정도진(1982) 등의 '사회적 적용 평가척도' 제작에 관한 예비적 연구에까지 이르렀으나 이는 모두 정신의학적인 입장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하여 질병발생과 생활변

화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사용되고 있을 뿐이며 교사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의 관계, 특히 요육실기교사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란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생리, 심리, 사회적 체계에서 부과되는 환경적 자극과 개인 내부에서의 요구를 자신이 지각하는 상태이며 개인의 적응능력을 넘어설 때 경험되는 현상이다. Selye(1965)는 생리적 용어로 스트레스를 정의하여 "신체의 소모율" 또는 "기능이나 손상에 의해 야기되는 모든 비특이한 변화의 종합"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생리적인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인자를 "스트레스 요인(stressor)"이라고 하였다.



〈그림 1〉 스트레스와 관련된 생리적 과정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동질 정체적 평형을 유지시키는 데 관여하는 생리적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Selye(1983)의 말을 인용하면 스트레스 반응은 두가지 내분비선, 즉 뇌

하수체전엽(후엽은 신경계)과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증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Levinthal, 1983). 스트레스유발요인은 신피질의 연합영역에 의해 감각대상으로 처리 해석되고, 그 결과로서 시상하부에서 코티코트로핀 방출호르몬(corticotropin-releasing hormone : CRH)을 분비 시킨다. 즉, 구심신경통로를 통해 전달된 스트레스 정보는 시상하부에서 CRH라는 화학적 형태로 바뀌게 된다(Warburton, 1979). 이 CRH는 뇌하수체전엽에서 부신피질자극호르몬(adrenocortico-tropin hormone : ACTH)의 분비를 자극하여 분비된 ACTH는 혈류에 의해 부신피질에 도착되는데, 부신피질은 최종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cortisol)을 비롯한 여러가지 부신피질호르몬(corticoids 또는 corticosteroids)을 방출시킨다. 부신피질호르몬(신체의 각 조직은 물론 뇌(혈뇌장벽 : B.B.B)에도 투사된다)은 다시 무기질피질호르몬(mineral corticoid)과 당류부신피질호르몬(glucocorticoid)으로 양분된다. 무기질피질호르몬(원래는 알도스테론)은 체내의 무기질, 특히 나트륨(Na^+), 칼륨(K^+) 및 염소(I^-)의 수준을 조절하는데 기억하기 때문에 뉴런의 흥분전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관계하여 보다 큰 작용을 하는 호르몬인 당질피질호르몬(원래는 코티졸)이다. 이 호르몬은 저장된 단백질과 지방질을 포도당으로 전환(결국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체중이 감소됨)시키는 데 관여하여, 매우 보다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긴급상황에 대처하는데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다. 특히 17-OHCS(17-hydroxycorticosteroid)라는 당류부신피질호르몬은 스트레스의 생리적 지표로써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개개인의 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생활변화를 양으로 측정하여 구체화 시키려는 시도가 Holmes와 Rahe(1967)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S. R. R. S.(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라는 측정도구를 제작하여 그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생활변화 단위점수에 따라 생활위기를 3단계로 구분했다. 첫째 단계는 경미한 생활위기(150~199점까지)이고 둘째 단계는 견딜만한 생활위기(200~299점까지)이며 세째 단계는 심각한 생활위기(300점이상)이다. 여기서 세째 단계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병에 걸릴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위기와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흔히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졌는데 Porter(1966)는 스트레스와 위기를 정신병의

발생을 촉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서 볼 때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변화로 인하여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를 적절하게 극복하지 못할 경우 정신 신체적 질병에 걸리거나 심리적 위기에 처하게 되어 원만한 사회인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2. 교사 스트레스의 연구

지금까지의 교사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보면 교직은 그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모든 수준의 교육제도, 또는 모든 영역의 교육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Wilson(1979)의 보고에 의하면 교사의 스트레스는 모든 직업중에서 항공관제사와 의과의사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고 하였으며, 전체 교사의 90% 정도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Freudenberg(1973), Maslach(1976), Weiskopf(1980) 등은 이러한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쌓여서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로 인되는 위기를 Burnout라 했다. Truch(1980)는 교사들의 소모상태(Burnout)로 인한 최근에 관한 연구에서 병가의 90% 정도가 스트레스에 기인한다고 보고했고 최근의 비율도 매년 5%씩 증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와 교사의 교직수행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그 정도를 양으로 측정하려는 노력은 매우 최근의 일로서 1980년대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즉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에 개발한 척도에는 Wilson의 SPTj, Maslach(1981) 등의 MBI와 Fimian(1983)의 WSS 등이 있다. 이들 척도는 교사의 스트레스에 의한 소모상태를 예방하고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편 특수교육교사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Weiskopf(1980)는 특수교육교사는 장애아양과 관련된 직업의 성질상 일반교사보다 다른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들이 교육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스트레스상황은 자기 내부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사들의 가족에게 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고 했으며 Cooper와 Marshall(1976), Bensky(1980), Weiskopf와 Shaw(1980) 등은 특수교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 장애아들과의 지나치게

〈표 1〉 조사대상요육실기교사의 요인

요인 장애 영역	연 령			특수 교직 경력			성 별		학 력					결혼 여부		전체
	20세 이하	30 -34세	35세 이상	5년 이하	5 -10년	10년 이상	남	여	전문대	대학	대학원	대·대학 원 재	기혼	미혼		
지체부자유	6 7.1	13 15.3	3 3.5	10 11.8	10 11.8	2 2.4	6 7.1	16 18.8	17 20.2	2 2.4	2 2.4	1 1.2	15 17.6	7 8.2	22 25.9	
정신박약아	10 11.8	30 35.3	5 5.9	12 14.1	29 34.1	4 4.7	14 16.5	31 36.5	33 38.8	6 7.1		6 7.1	36 42.4	9 10.6	45 52.9	
농 아	5 5.9	6 7.1	1 1.2	4 4.7	7 8.2	1 1.2	2 2.4	10 11.8	5 5.9	5 5.9		2 2.4	9 10.6	12 14.1		
맹 아		6 7.1			6 7.1		4 4.7	2 2.4	5 5.9			1 1.2	5 5.9	1 1.2	6 7.1	
전 체	21 24.7	55 64.7	9 10.6	26 30.6	52 61.2	7 8.2	26 30.6	59 69.4	60 70.6	13 15.3	2 2.4	10 11.8	65 76.5	20 23.5	85 100.0	

잦은 접촉, 타인에 대한 책임감, 역할갈등과 같은 원인들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가중된다고 지적하였고, Kyriacou(1978)는 특수교육교사들의 소모상태 징후를 51개 항목으로 분석하여 이외 예방이 특수교육교사의 정신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볼 때 특수교육 교사들이 그들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는 하나 그들 모두가 심신의 소모상태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소모상태의 징후를 미리 알아서 이를 예방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미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하에 처해졌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교직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목적

- 첫째, 요육실시교사의 스트레스 수준을 알아 본다.
- 둘째, 요육실기교사의 장애영역, 성, 연령, 특수교직경력년수 및 학력별 스트레스 상태를 밝힌다.
- 세째, 요육실기교사의 원인별 스트레스 정도를 밝힌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전국 82개 특수학교 전체 요육실기교사 107명에 대하여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

조사방법은 특수학교 요육실기교사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원인별로 알아보기 위하여 Wilson의 'Stress Profile for Teachers'를 연구자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작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

〈표 2〉 질문지의 내용별 문항수

내 용	항목수
1. 학생행동	4
2. 행정관리자(교장·교감)와의 관계	4
3. 교사상호간의 관계	4
4. 보모 또는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	4
5. 시간관리	4
6. 교사자신의 내적 갈등	4
7. 스트레스의 신체적 징조	4
8. 스트레스의 심리적 정서적 징조	4
계	32

2. 자료처리

- (1) 개인별 스트레스 조사결과를 5단계 평정법에 의하여 전산처리 하였는데 가장 가벼운 정도를 1점으로 하고 각 단계마다 1점씩 가산 하였다.
- (2) 집단별 스트레스 수준을 3단계로 나누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하였다.
- (3) 집단간 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으로 비교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장애영역-성별 스트레스 수준 비교

특수학교 교육실기교사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장애영역-성별에 따라 3단계 수준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다음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아래 <표 3>을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스트레스를 받는 수준이 가벼운 교사는 14.1%이고 견딜만한 교사가 75.3%이며 그 정도가 심각하여 소진상태에 이르게 될 위기에 있는 교사가 10.6%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Dunham(1976)과 Kyriacou(1978) 등이 영국 도시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보고서에서

<표 3> 장애영역-성별 스트레스 수준

장애영역 성 별 수 준 의 수 준 계 치	장애영역			지체부자유			정신박약아			농 아			맹 아			전 체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가벼움	f		1	1	1	8	1	2	3							2	10	12
(32-64)	%		1.7	1.2	3.8	11.9	9.4	3.8	3.4	1.7						7.7	16.9	14.1
견딜만함	f	4	14	18	11	22	33	1	7	8	3	2	5	19	45	64		
(65-96)	%	15.4	12.2	21.2	42.3	37.3	38.8	3.8	11.9	9.4	11.5	3.4	5.9	73.1	76.3	75.3		
심각함	f	2	1	3	2	2	4		1	1	1		1	5	4	9		
(97-100)	%	7.7	1.7	3.5	7.7	3.4	4.7		1.7	1.2	3.8		1.2	19.2	6.8	10.6		
X ²										4.60879								

<표 4-1> 연령별 스트레스 상태

연령 성 별 수 준 계 치	장애영역			지체부자유			정신박약아			농 아			맹 아			전 체		
	N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9세 이하	N	1	5	6	1	9	10		5	5						21		
	M	86.00	80.40	81.33	62.00	79.56	77.80		79.20	79.20						79.14		
	SD	0.00	8.35	7.81	0.00	9.08	10.20		14.89	14.89						10.43		
30 - 34세	N	4	9	13	9	21	30	2	4	6	4	2	6			55		
	M	93.00	77.33	82.33	87.00	72.42	76.80	60.50	80.25	73.67	84.25	79.50	82.67			78.36		
	SD	17.94	11.34	14.93	8.30	17.24	16.43	10.61	10.21	13.75	17.73	0.71	13.95			15.47		
35세 이하	N	1	2	3	4	1	5		1	1						9		
	M	84.00	94.50	91.00	79.25	68.00	77.00		44.00	44.00						78.00		
	SD	0.00	0.71	6.08	6.65	0.00	7.65		0.00	0.00						15.72		
전 체	N	1	16	22	14	31	45	2	10	12	4	2	6			85		
	M	90.33	80.44	83.14	83.00	74.35	77.04	60.50	76.10	73.50	84.25	79.50	82.67			78.52		
	SD	14.51	10.92	12.48	10.10	15.24	14.31	10.61	16.15	16.14	17.73	0.71	13.95			14.27		

심각한 스트레스 위기에 있는 교사가 전조사대상 교사의 약 20%가 된다는 비율보다는 낮은 편이다. 이들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교사들을 장애영역 - 성별로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체부자유학교의 남교사와 정박아학교의 남교사가 7.7%로 가장 높았고 지체부자유학교의 여교사와 농아학교의 여교사가 1.7%로 가장 낮았다.

장애영역간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이들간에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2. 연령, 결혼여부, 교직경력, 및 학력별 스트레스 형태

(1) 연령별 비교

특수학교 요육실기교사의 장애영역 - 성 - 연령간 스트레스 상태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4-1>, <표 4-2>와 같다.

<표 4-2> 변량분석표

변량원 (S. L)	자승화 (S. S)	자유도 (D. F)	평균자승화 (M. S)	F
장애영역	878.344	3	292.781	0.222
성	820.794	1	820.794	0.044
연령	191.925		95.963	0.614
오차	15,257.106	78	195.604	
전체	17,093.224	84	203.491	

**P<0.01

위의 <표 4-1>과 <표 4-2>를 보면 집단별 평균득점은 60.50에서 93.00 사이에 분포되어 있고 지체부자유학교의 남자 30~34세의 교사가 가장 높고

농아학교의 남자 30~34세의 교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장애영역 - 연령별로 보면 지체부자유학교 교사는 29세 이하와 30~34세 사이의 교사가 35세 이상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정박아학교는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농아학교의 교사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사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낮아진다는 Jean(1985)의 연구보고에 비추어 보면 지체부자유학교를 제외 하고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2) 결혼여부별 비교

결혼여부별 평균득점을 분석하고 이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5-1>과 <표 5-2>와 같다.

<표 5-2> 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A(장애영역)	895.504	3	298.513	0.180
M(결혼여부)	141.069	1	141.069	0.376
S(성)	636.570	1	636.570	0.063
AM	1,573.523	3	524.508	0.039
AS	1,446.077	3	482.026	0.052
MS	215.836	1	215.836	0.275
AMS	113.682	1	113.682	0.427
오차	12,635.996	71	177.972	
전체	17,093.224	84	203.491	

*P>0.05

평균득점 분포는 60.50에서 109.00까지이며 장애영역 - 성 - 결혼여부에 대한 스트레스 상태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각 영역의 상호작용에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농아학교의

<표 5-1> 결혼여부별 스트레스 상태

장애영역 결혼여부 통 계 성 차	지체부자유			정신박약아			농아			맹아			전체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계	
	N	M	S.D.	N	M	S.D.	N	M	S.D.	N	M	S.D.	계	
기혼	4	11	15	12	24	36	2	7	9	3	2	5	65	
	N	95.00	79.18	83.40	84.25	75.50	78.42	60.50	80.71	76.22	76.00	79.50	77.40	
	M	15.73	11.69	14.25	8.69	16.49	14.83	10.61	13.35	15.07	7.94	0.71	5.94	
미혼	2	5	7	2	7	9	3	3	1	1	1	1	20	
	N	81.00	83.20	82.57	75.50	70.43	71.56	65.33	65.33	109.00	109.00	76.35	14.67	
	M	7.07	9.60	8.42	19.09	9.76	11.05	19.76	19.76	0.00	0.00	0.00	14.30	
전체	6	16	22	14	31	45	2	10	12	4	2	6	85	
	N	90.33	80.44	83.14	83.00	74.35	77.04	60.50	76.10	73.50	84.25	79.50	82.67	
	M	14.51	10.92	12.48	10.10	15.24	14.31	10.61	16.15	16.14	17.73	0.71	13.95	
	S.D.													

〈표 6-1〉 특수교직경력년수별 스트레스 상태

특수 교직경력 통 계 성 적 지체부자유 장애영역	장애영역			지체부자유			정신박약아			농 아			맹 아			전 체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5년 이하	N	4	6	10	5	7	12		4	4						9	17	26
	M	95.50	79.83	86.10	82.20	82.57	82.41		74.50	74.50						88.11	79.71	82.62
	S.D.	15.29	8.77	13.64	13.74	12.33	12.31		12.79	12.79						15.20	10.92	12.92
5년~10년	N	2	8	10	8	21	29	2	5	7	4	2	6	16	36	52		
	M	80.00	80.13	80.10	84.25	72.48	75.73	60.50	78.00	73.00	84.25	79.50	82.67	80.75	75.33	77.00		
	S.D.	5.66	12.64	11.31	8.62	14.89	14.34	10.61	21.59	20.06	17.73	0.71	13.95	13.10	14.97	14.51		
10년 이상	N		2	2	1	3	4		1	1						1	6	7
	M		83.50	83.50	77.00	68.33	70.50		73.00	73.00						77.00	74.17	74.57
	S.D.		16.26	16.26	0.00	21.96	18.45		0.00	0.00						0.00	17.36	15.88
전체	N	6	16	22	14	31	45	2	10	12	4	2	6	26	59	85		
	M	90.33	80.44	83.14	83.00	74.35	77.04	60.50	76.10	73.50	84.25	79.50	82.67	83.15	76.47	78.52		
	S.D.	14.51	10.92	12.48	10.10	15.24	14.31	10.61	16.15	16.14	17.71	0.71	13.95	13.82	14.09	14.11		

남자 기혼교사가 가장 적고 맹아학교의 미혼남자교사의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기혼교사가 미혼교사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특수교직경력년수별 비교

장애영역-성-경력별 평균득점을 분석하고 이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6-1〉과 〈표 6-2〉와 같다.

타났으며, 경력 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별로 보면, 지체부자유학교의 교사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농아학교의 교사가 적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체부자유학교에 근무하는 요육실기교사는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박, 맹, 농아학교의 요육실시교사는 직무만족이 낮게 나타났다는 정태훈(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스트레스와 직무만족간의 상관관계는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특수교직경력이 적은 맹아학교 요육실기교사의 경우 남교사 보다 여교사의 스트레스가 더 높았고 맹아학교를 제외한 지체부자유, 정박, 농아학교의 교사는 여교사 보다 남교사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요육실기교사 경력년수와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과의 사이에는 현저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Jean(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4) 학력별 스트레스 비교

장애영역-학력-성별 평균득점과 이를 요인간 스트레스 상태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7-1〉과 〈표 7-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위의 〈표 6-1〉과 〈표 6-2〉를 보면 평균득점 분포는 60.50에서 95.50까지이며 각 영역은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5년이하의 경력을 가진 지체부자유학교의 남교사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5년~10년 사이의 농아학교의 남교사가 가장 적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룹별로 보면, 5년 이하의 적은 교직경력을 가진 교사집단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경력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

〈표 7-1〉 학력별 스트레스 상태

학력 통 계 성 장애영역	지체부자유			정신박약아			농 아			맹 아			전 체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계	
전문 대졸	N M S.D.	4 87.50 14.93	13 79.00 11.29	17 81.00 12.30	8 85.63 11.90	25 75.48 15.36	33 77.94 15.08	5 84.00 14.83	5 84.00 7.94	3 76.00 0.71	2 79.50 5.94	5 77.40 13.63	60	
대 졸	N M S.D.	1 108.00 0.00	1 85.00 0.00	2 96.50 16.26	4 78.50 5.20	2 61.50 26.16	6 72.83 15.17	5 68.20 14.52	5 68.20 14.52				13 74.69 16.93	
전 체	N M S.D.	1 84.00 0.00	1 80.00 0.00	2 82.00 2.83										
대학, 대학원	N M S.D.		1 95.00 0.00	1 95.00 0.00	2 81.50 10.61	4 73.75 9.18	6 76.33 9.44	2 60.50 10.61	2 60.50 0.00	1 109.00 13.95			10 78.30 16.45	
전 체	N M S.D.	1 90.33 14.51	16 80.44 10.92	22 83.14 12.48	14 83.00 10.10	31 74.35 15.24	45 77.04 14.31	2 60.50 10.61	10 76.10 16.15	12 73.50 16.14	4 84.25 17.73	2 79.50 0.71	6 82.67 13.95	85 78.57 12.46

〈표 7-2〉 변량분석표

변량원 (S. L)	자승화 (S. S)	자유도 (D. F)	평균자승화 (M. S)	F
장애영역	648.255	3	216.086	0.359
학 력	169.505	3	56.502	0.836
성	772.706	1	772.706	0.052
오 차	15,279.526	77	198.435	
전 체	17,093.224	84	203.491	

*P>0.05

위의 〈표 7-1〉과 〈표 7-2〉를 보면 스트레스 상태의 평균득점 분포는 60.50에서 109.0까지이고 농아학교의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남자교사가 가장 낮고 맹아학교의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남자교사가 가장 높았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원인별 스트레스 정도 비교

특수학교 요육실기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원인별로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 〈표 8-1〉과 〈표 8-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8-2〉 변량분석표

변량원 (S. L)	자승화 (S. S)	자유도 (D. F)	평균자승화 (M. S)	F
장애영역	81.264	3	27.088	0.497
성	20.155	1	20.155	0.442
원 인	12,880.390	4	3,220.097	0.000
오 차	2,568.642	76	33.798	
전 체	17,093.224	84	203.491	

**P>0.01

위의 〈표 8-1〉과 〈표 8-2〉를 보면 평균득점은 6.50에서 13.50사이에 분포되어 있고 맹아학교의 여교사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아학교의 남교사가 학생행동에 의해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원인별로 보면 학생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상호간의 관계에서 가장 낮은 스트레스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학생행동과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Kyriacou(1978) 등의 연구에서 학생의 무지함으로 인한 교사의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표 8-1〉 원인별 스트레스 상태

장애영역 통계 성 적 지 체 부 자 유	장애영역			지체부자유			정신박약아			농아			맹아			전체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학생 행동	N M S.D.	6 12.67 1.63	16 10.69 2.41	22 11.23 2.37	14 10.71 1.82	31 10.13 2.25	45 10.31 2.12	2 6.50 2.12	10 9.80 2.15	12 9.25 2.42	4 10.25 1.50	2 9.50 0.71	6 10.00 1.26	85 10.38 2.24		
행정관리자 와의 관계	N M S.D.	6 9.67 1.63	16 8.81 2.23	22 9.05 2.08	14 9.21 2.42	31 8.38 2.71	45 8.71 2.62	2 7.50 0.71	10 8.80 3.12	12 8.58 2.87	4 9.50 2.38	2 8.50 0.71	6 9.17 1.94	85 8.81 2.45		
교사상호간의 관계	N M S.D.	6 9.67 2.25	16 9.44 3.44	22 9.50 3.11	14 8.79 2.12	31 8.65 2.65	45 8.69 2.48	2 7.00 2.83	10 8.40 2.22	12 8.17 2.25	4 10.25 2.87	2 6.50 2.12	6 9.00 3.10	85 8.85 2.66		
학부모와의 관계	N M S.D.	6 11.33 1.97	16 10.81 2.37	22 10.95 2.24	14 11.86 2.93	31 10.84 2.79	45 11.16 2.84	2 7.50 2.12	10 11.20 1.93	12 10.58 2.35	4 11.00 1.41	2 13.50 3.54	6 11.83 2.32	85 11.07 2.57		
시간 관리	N M S.D.	6 10.00 1.79	16 9.81 2.54	22 9.86 2.32	14 9.43 1.70	31 7.77 2.83	45 8.29 2.63	2 8.50 2.12	10 8.40 1.96	12 8.42 1.88	4 9.50 2.38	2 10.50 2.12	6 9.83 2.14	85 8.82 2.49		
교사자신의 내적갈등	N M S.D.	6 12.83 1.60	16 10.56 2.25	22 11.18 2.30	14 11.79 1.53	31 9.87 2.87	45 10.47 2.67	2 7.50 2.12	10 9.60 2.88	12 9.25 2.80	4 9.25 2.87	2 10.00 0.00	6 10.83 2.32	85 10.51 2.60		
스트레스의 신체적 징조	N M S.D.	6 13.00 4.56	16 10.25 2.59	22 11.00 3.37	14 10.00 2.25	31 9.26 2.83	45 9.49 2.66	2 7.50 0.71	10 9.90 3.73	12 9.50 3.50	4 9.50 3.40	2 11.25 0.71	6 10.50 2.68	85 10.22 3.01		
스트레스의 심리·정서적 징조	N M S.D.	6 11.17 3.13	16 10.06 1.73	22 10.36 2.17	14 11.21 2.12	31 9.35 3.23	45 9.93 3.03	2 8.50 2.12	10 10.00 3.02	12 9.75 2.86	4 11.25 3.95	2 10.50 0.71	6 11.00 3.10	85 10.09 2.78		

이상춘(1980) 등의 연구에서 특수학교에 근무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학부모의 이해부족이라고 지적한 점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이를 장애영역별로 보면 지체부자유학교의 교육실기교사는 학생과의 관계에서 정박아, 농아, 맹아학교의 교육실기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우리나라 특수학교 교육실기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보고 장애영역, 연령, 성, 특수교직경력 및 학력, 그리고 스트레스 원인별로 그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 전국 특수학교 교육실기교사 107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전체교사의 스트레스 평균치는 견딜만한 정도였고 심각한 스트레스위기에 처해 있는 교사를 보면 정박아학교 교사가 가장 높고 농아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실기교사가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 비교해 본 결과 장애영역-연령간의 관계에서 지체부자유학교 교사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농아학교 교사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한 교사가 결혼하지 않은 교사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실기교사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 원인중에 학생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참 고 문 헌

1. 고병학, 송옥현, 신윤호 : 한국인의 생활사건에 관한 예비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0 : 62-78, 1981.
2. 김정희, 이장호 :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행동과학연구, 7 : 127-138, 1985.
3. 이충휘 : 물리치료사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대한 물리치료학회지, 제2권 1호, 1990.
4. 이상준외 5인 : 특수교육 개선을 위한 종합실태조사. 특수교육연구, 7 : 27, 1980.
5. 정도진, 홍제의 : 사회재적응평가척도 제작. 신경 정신의학, 21 : 123-136.
6. 정태훈 : 특수학교 교육실기교사의 역할갈등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산업대학원 보건학석사학위논문, 1991.
7. Bensky, J. M. : A Problem for Educators, Exceptional child. Exceptional children, 47 : 24-29, 1980.
8. Cooper, C. L., and J. Marshall : Occupational Sources of Stress :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lating to Coronary Heart Disease and Mental Ill Health.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49 : 11-28, 1976.
9. Dunham, J. : Stress in Schools, Birmingham, England.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master and Union of Teachers, 19, 1976.
10. Fimian, M. T. : A Comparison of Occupational Stress Correlates as Reported by Teachers of Mentally Retarded and Nonmentally Retarded Handicapped Students.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Mentally Retarded, 18 : 62-67, 1983.
11. Freudberger, J. J. "Burnout : Occupational Hazard of the child Care Worker. Child Care Quarterly, 6 : 90-98, 1973.
12. Holmes, T. H. and Rahe, R. H. :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 213-218, 1967.
13. Jean, R. L. : Burnout Among Rural Special Education Specialis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5 : 2628A, 1985.
14. Kyriacou, C. and Sutcliffe, E. : Teacher Stress : Prevalence Sources and Symptoms. British, J. of Educational Psychology, 48 : 159-167, 1978.
15. Margolis, B. L., Kroes, W. H., & Quinn, R. R. : Job stress : An unlisted occupational hazard.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16 : 659-661, 1974.
16. Maslach, C. and Jackson, S. E. :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2 : 99-113, 1981.
17. Maslach, C. : Job Stress and burnout. Human Behavior, 5 : 16-22, 1976.
18. Porter, R. A. : Criss Intervention and Social Work Models. Journal of Community Mental Health, 213 : 13-26, 1966.
19. Selye, H. : The Stress of Life : N. Y. : McGraw-Hil Co., 27, 1956.
20. Selye, H. : The Stress Syndrom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153 : 97-98, 1965.
21. Shaw, S. F., Bensky, J. M., Dixon, B. : Administrators Role in Fostering the Mental Health of Special Services Personal. Exceptional Children, 47 : 30-36, 1980.
22. Truch, S. : Teacher Burmout and What to do about It. Novata, California. Academic Therapy Publications Ins, 10, 1980.
23. Weiskopf, P. E. : Burnout among Teachers of Exceptional Children. Exceptional Children, 47 : 18-19, 1980.
24. Wilson, C. Survey Conducted in SanDiego Country. San Diego, California : Department of Education, 1, 1979.